
칼라TV工業의 費用構造와 關聯政策分析

金 榮 奉

.....▷ 目 次 ◁.....

I. 序 論
II. 費用構造
III. 支援政策
IV. 要約 및 政策的 結論

.....

I. 序 論

칼라TV는 現代의 主宗 消費者電子機器로서 知識 및 技術集約的인 産業特性和 所得彈力的인 製品性格이 世界의 칼라TV市場을 계속 擴大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産業의 높은 成長性和 電子工業振興에서의 中樞的 役割을 勘案하여 1980年代의 戰略輸出 産業으로 支援育成되고 있으며 지난 5年間 상당한 生産基盤의 擴大를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過去에 世界의 칼라TV工業

國의 일반적 成長과턴과는 달리 全量輸出産業으로서 이 産業의 育成을 企圖하였다. 그러나 最近에 對外市場與件이 불리하게 展開됨에 따라 輸出産業으로서의 成長可能性에 疑問이 提起되었고 當面한 施設稼動問題에의 解決策이 要請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向後의 칼라TV工業政策은 技術的 및 經濟的 요인에 의한 海外市場構造의 變化可能性和 함께 이 製品의 戰略的 性格과 國內潛在需要 및 國內生産要素條件에 의한 産業振興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칼라TV工業의 費用構造와 關聯政策의 效率性を 分析하여 봄으로써 韓國칼라TV産業에서 發生하는 諸問題의 所在을 把握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 칼라TV工業現況에 관하여는 生産과 輸出 以外에 公式의으로 集計 發表된 資料가 없기 때문에 칼라TV費用構造의 分析은 주로 設問調査 및 業界의 意見資料에 의하였음을 밝혀 둔다.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이 論文은 近刊豫定인 筆者의 『韓國의 칼라TV工業』의 一部를 收錄한 것이다. 따라서 이 論文과 關聯된 칼라TV工業 問題에 대하여는 同報告書를 參照하기 바란다.]

II. 費用構造

1978년의 칼라TV輸出統計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臺當 平均輸出價格은 162.8弗이었다. 한편 14인치 基準의 製造原價는 各社마다 다르나 150~160弗 수준, 그리고 賣出原價는 170~190弗 수준으로 調査되었다. 한편 NRI(1978)에 의하면 美國에서의 12인치 칼라TV 小賣價格은 Sears가 295弗로 가장 낮고 그밖의 日本製品이 300~330弗, 그리고 Sony가 400弗 수준에서 販賣된다. 以上の 價格資料에 비추어 보면 OEM¹⁾「베이스」로 주로 輸出되는 韓國製TV는 美國市場에서 상당히 낮은 價格으로 販賣되며, 우리나라가 칼라TV輸出에서 얻은 利益은 매우 적거나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 NRI(1978)는 또한 韓國이 臺灣보다 높은 賃金과 낮은 部品産業水準에도 불구하고 黑白TV의 國際競爭力이 높은 이유로서 ① 輸出用 原資材 및 部品에 대한 輸入免稅, ② 免稅輸入 原資材의 消耗率(wastages) 部分의 內需生産에 轉用, ③ 低利輸出金融을 國內金融市場에서 活用함으로써 얻는 短期利差 등을 指摘하였는데 두번째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輸出行爲에 의한 企業의 利益이 칼라TV의 경우에도 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칼라TV 組立工業에서 材料費가 賣出原價에서 占有하는 比重이 75%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過去에 投入原資材의 70% 이상을 輸入에 依存하였기 때문에 칼라TV輸出에 外

貨稼得率도 매우 낮았다고 判斷된다. 1978년의 14인치 칼라TV製造에 필요한 臺當 原資材 輸入은 90弗 수준으로 調査되었는데 이와 같은 輸入依存型 生産構造는 國內에서의 輸出에 의한 所得 및 雇傭效果를 制限시키고 또한 50% 内外의 材料費가 固定支出됨으로써 製品의 價格下落餘地를 縮小시킨다.

1978년의 우리나라 칼라TV 部品の 國產化率은 企業에 따라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表 1>은 우리나라 大製造業의 平均輸入依存도와 部品比率를 나타내는데 1978년에 CRT, IC, TR, 「다이오드」, FBT 등 材料費의 53.1%에 이르는 部品이 全量 輸入에 依存하였고 平均輸入依存度는 약 72%이었다. 이것은 國產部品の 供給比率로서 國內 供給部品の 輸入部品까지 追跡하면 材料의 輸入依存度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現在 推進 및 完了된 部品施設이 正常的으로 稼動되면 國產部品の 供給比率는 1~2年 以內에 90% 수준까지 提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表 1> 칼라TV의 部品比率와 輸入依存度
(단위: %)

	構 成 比	輸入依存度 (1978)
CRT	38.7	100
튜너	8.3	0
IC, TR, 다이오드	12.0	100
FBT	2.4	100
抵抗器	3.5	51
蓄電器	4.3	38
其他	30.8	33
合 計	100.0	72

輸出用 칼라TV의 生産에 있어서 部品施設의 稼動은 技術, 價格面에서 國際競爭力의 保有를 前提로 한다. 本節에서는 우리나라 칼라TV工業의 費用構造, 勞動生産性과 賃金 및 規

1)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輸出商品이 輸入商社의 商標로서 販賣된 것을 契約으로 한 商品輸出 形式을 말함.

穫의 經濟를 검토함으로써 이의 價格競爭力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原價構成

칼라TV製造에 있어서의 原價構成에 관하여는 過去에 調査된 바가 전혀 없어 既存資料에 依存하여 그 費用構造를 把握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過去의 生産이 거의 組立에 局限되었으므로 1978년에 들어 주로 兩大家電企業에 의하여 生産이 급격히 增加하였기 때문에 이의 生産函數 또는 費用函數를 推定하기가 어렵다.

칼라TV의 販賣原價는 部品 및 材料費와 組立費用 및 販賣費用으로 구성된다. 部品 중 CRT는 가장 基本要素로서 總材料 및 部品費用의 40% 가가이를 차지하며 「발브」는 CRT 販賣原價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그밖에 「튜너」, IC, TR, 「다이오드」, FBT, 抵抗器類, 蓄電器 등 수많은 部品이 投入되나 이들은 모두 單一品目으로서는 材料 및 部品費用의 10% 미만을 構成하는 데 그친다. 理想的으로는 TV組立과 모든 部品에 投入되는

生産要素를 합하여 적어도 組立 및 一次所要 部品産業에서의 費用構成을 分析함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하여는 풍부한 資料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研究에서는 設問調査를 통한 資料蒐集에 의하여 組立 및 一次所要部品産業에서의 固定投入係數의 推定을 試圖하였으나 資料의 制限性으로 만족할 만한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表 2>는 우리나라 칼라TV工業을 組立部門, CRT製造部門, 「발브」製造部門, 其他部品部門으로 나누어 原價構成을 나타낸 表이며 <表 3>은 <表 2>를 基礎로 하여 CRT와 「발브」 및 部品이 國內供給될 경우의 綜合原價를 構成한 것이나 다음 몇가지 이유로 이것이 정확히 韓國칼라TV産業의 費用構造를 反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組立部門에서 資料蒐集이 여의치 못하여 비교적 信憑性있게 調査되었다고 判斷되는 綜合家電企業의 칼라TV部門 原價構成을 우리나라 칼라TV組立의 代表的 形態로 推定하였다. 그리고 CRT와 「발브」製造業部門은 아직 稼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稼動時의 豫想에 불과하며, 특히 CRT部門의 資料는 그

<表 2> 칼라TV工業의 部門別 原價構成

(단위 : %)

	CTV 組立	CRT (발브 除外)	발 브	其他部品
材 料 費	75.9	76.9	20.9	57.2
人 件 費	3.1	7.2	4.6	17.9
에너지 및 유틸리티	0.6	5.2	7.9	} 11.1
減價償却	0.8	6.5	13.4	
其 他	2.5	0.5	15.1	
製 造 原 價	82.9	96.3	61.9	86.2
販 賣 管 理 費	9.2	8.6	1.0	9.7
營 業 外 費 用	4.6	12.2	31.9	} 4.1
利 潤 및 其 他	3.3	-17.1	5.2	
賣 出 原 價	100.0	100.0	100.0	100.0

註 : 우리나라 칼라TV組立 및 部品企業에 대한 調査資料에서 推定.

信憑성이 문제가 있으나 代案이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음 CRT 以外の 部品에 있어서는 全部品에 대하여 IC, TR, 「튜너」, 抵抗器, 「콘덴서」, 「스피커」 및 PCB 製造業體의 平均原價構成을 사용하였으나 一部部品은 現在 國內供給이 되지 않고 있으며 部品 및 企業別 販賣比重이 考慮되지 않았기 때문에 칼라TV 部品産業의 原價構成을 정확히 反映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制約性에도 불구하고 칼라TV 産業의 原價構成이 종래의 家電産業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表 3>이 이미 調査된 電子産業의 原價構造보다는 合理的으로 이 産業의 費用構造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²⁾. <表 2>에 의하면 組立部門에서는 部品 및 材料費가 販賣原價의 75.9%를 占有하여 附加價値率이 매우 낮고 材

料費 以外の 費用 중에서도 販賣 및 管理費 比重이 높음이 나타난다. 이것은 組立企業이 企劃 및 販賣를 담당하는 綜合企業으로서 管理職人件費, 廣告費, 市場開拓費 및 輸送費 등의 지출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CRT 部門에도 「발브」, DY, 電子銃 등 部品投入이 많아 部品 및 材料費 比重이 매우 크며 에너지費用의 比重도 5.2%로서 상당히 높다. 이 部門과 「발브」部門은 특히 減價償却費와 營業外費用의 比重이 매우 큰데 이것은 새로이 投資된 事業으로서 初期事業年度에 減價償却比率과 金融費用이 큰 데에 연유한다. 「발브」部門은 특히 이와 같은 特徵이 현저하여 材料費의 比重이 낮은 反面 에너지費用은 매우 높다. CRT를 제외한 部品産業은 대체로 勞動集約的이라고 할 수 있다.

<表 3> 칼라TV 組立 및 部品工業의 綜合原價構成

(단위: %)

	CTV 組立	CRT (발브 除外)	발 브	其 他	合 計
部品 및 材料費	—	11.1	2.5	26.3	39.9
人 件 費	3.1	2.2	0.6	8.2	14.1
에너지 및 유틸리티	0.6	1.6	0.9	(0.4)	3.5
減價償却	0.8	1.9	1.6	(1.2)	5.5
其 他	2.5	0.1	1.8	(3.5)	7.9
賃 借 料					(0.1)
租 稅 公 課					(0.3)
製 造 原 價	7.0	16.9	7.4	39.6	70.9
管理販賣費	9.2	2.6	0.1	4.5	16.4
人件費					(5.0)
賃借料 및 貸損償却					(1.0)
減價償却					(0.4)
租稅公課					(0.9)
營業利益	7.9	-1.4	4.4	1.8	12.7
合 計(原價比重)	24.1	18.0	12.0	45.9	100.0

註: () 안의 數値는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1978)의 「라디오 및 TV 通信部門」의 製造原價 및 管理販賣費 中 構成比를 適用 推定한 것임.

2) 『企業經營分析』에는 每年度 라디오, TV 및 通信機器部門의 原價分析資料가 掲載된다. 그러나 이것은 上記製品의 生産企業에 對해 調査한 原價構成은 나타나지 않는다.

〈表 3〉에서는 부품이 國內供給될 경우의 칼라TV産業의 綜合原價構成을 推定하였다. 여기에서는 CRT組立과 「발브」製品の 國産化 및 組立段階에서 所要되는 部品の 國産化가 假定되었으며 數年內에 우리나라에서 實現可能한 生産構造라고 생각된다. 보다 精確하게 生産要素의 投入狀況을 알기 위해서는 CRT, 「발브」 및 部品製造에 있어서의 原價構成을 段階에 따라 계속 追跡함이 바람직하나 資料制約에 의하여 一次的인 部品工業까지만의 綜合에 그쳤다. 이 表에서는 칼라TV組立에 필요한 部品 및 材料費의 比重 75.9% 가운데 CRT가 30%, 其他部품이 45.9% 占有하는 것으로, 그리고 CRT價格의 40% 즉, 칼라TV販賣原價의 12%가 「발브」價格이 占有하는 것으로 假定되었다. 또한 이 部門의 附加價值構成을 把握하기 위하여 製造原價중 賃借料 및 租稅公課의 比率과 管理 및 販賣費중 人件費, 賃借料 및 貸損償却費, 減價償却費, 租稅公課 등이 『企業經營分析』(1978)의 「라디오, TV 및 通信部門」의 製造原價 構成比를 適用하여 推定되었다.

이와 같이 推定된 우리나라 칼라TV工業部門의 販賣原價構成은 〈表 4〉의 마지막 列에서 보여준다. 部品 및 材料費의 比重은 總販賣原價의 39.9%를 占有하는데 이는 一部가 輸入에 依存되고 나머지는 國內의 關聯電子素材 및 部品工業, 石油化學工業, 製紙 및 包裝業 등에 波及될 것이다. 에너지 및 「유틸리티」費用의 比重은 3.5%로서 주로 CRT와 「발브」製造 部門에서 사용된다. 人件費의 比重은 製造過程에서 14.1%로서 組立과 CRT 以外の 部品 製造에서 대부분 發生되며, 管理 및 販賣職의 人件費 比重 5.0%가 追加되어 全人件費가 販

賣原價중 19.1%를 占有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한편 減價償却費의 比重은 5.9%로서 다소 높은데 주로 CRT와 「발브」製造工程에서 發生함에 비추어 이 部門이 成熟함에 따라 減少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營業利益은 12.7%로서 利子和 利潤이 主項目으로 構成되고 기타 技術使用費用, 特別損益, 外換差益 등이 調整相殺된다.

〈表 4〉 칼라TV工業의 製造費用과 附加價值構成 (단위: %)

製 造 費 用		附 加 價 值	
材 料 費	39.9	人件費	19.1
電力및유틸리티	3.5	製 造	14.1
製造經費	7.5	管理및販賣	5.0
販賣및管理費	9.1	營業利益	12.7
		減價償却	5.9
		賃借料및貸損償却	1.1
		租稅公課	1.2
合 計	60.0	合 計	40.0

資料: 本研究設問調査에서 推定.

〈表 4〉에서는 칼라TV組立 및 部品工業에서 豫想되는 生産費用과 附加價值的 構成比가 推定되었다. 材料費, 電力 및 「유틸리티」費用, 그리고 人件費, 租稅公課, 減價償却費, 賃借料 및 貸損償却을 差減한 製造經費와 販賣管理費가 製造費用을 構成하여 그 比重은 販賣原價의 약 60%를 構成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 중 製造, 販賣 및 管理에 소요되는 諸費用 즉, 修繕, 保險, 外注加工, 施行, 輸送, 廣告宣傳 등의 費用은 販賣原價의 16.6%를 차지하며 大量生産에 의한 原價節減效果가 가장 큰 部門이라고 할 수 있다.

附加價值率は 40%로 推定되고 이 중 人件費가 19.1%를 占有함으로써 勞動所得分配率は 48%에 이른다. 이 比率은 우리나라의 라

디오, TV 및 通信機器의 勞動所得分配率 56%(1977)보다 낮으며 人件費의 74%는 生産職에, 나머지 26%는 販賣 및 管理職에 지출된다. 한편 總營業利益은 販賣原價의 12.7%로 매우 높으나 <表 2>에 의하면 이 중 대부분이 支給利子 등 營業外費用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2. 規模의 經濟

우리나라 칼라TV産業에서의 生産規模는 製品原價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判斷된다. 現在에는 특히 組立 및 部品産業에 過剩投資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稼動率의 提高에 따라 資本「코스트」등 平均固定費用(average fixed cost)이 낮추어짐으로써 短期平均費用曲線(shortrun average cost curve)은 生産規模에 따라 상당히 右下向으로 傾斜된 형태를 가질 것으로 豫想된다. 現在 組立 및 CRT生産能力은 3部交代時 年540萬臺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되어 앞으로 이 部門에서 工場規模의 增大에 따른 利益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生産規模의 增大는 既存의 組立 및 CRT 製造部門에서의 生産要素의 效率의 使用을 위한 投資, 部品産業에서의 量産에 의한 利益을 위한 投資, 아직 開發되지 않은 部門에서의 施設投資를 誘發함으로써 長期平均費用(longrun average cost)의 下向도 豫想된다.

生産規模에 따른 平均費用의 節減은 <表 5>의 거의 모든 費用項目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材料費와 에너지 및 「유틸리티」費用은 가장 節減이 어려운 部門이나 短期的으로는 大量購買의 利益과 稼動率 增大에 의한 消耗率 減少 등을 통하여 長期的으로는 資源 및

에너지 節約을 위한 投資를 통하여 費用節減이 가능하다. 人件費에서는 勞動의 效率性 향상, 즉, 作業時間內 勞動稼動率 增大, 分業化와 專業化에 의한 熟練度 提高 등을 통한 利益을 들 수 있고, 勞動生産要素에 불리하게 要素相對價格이 급격히 變化할 경우 生産規模 增大가 勞動節約的 投資를 促進하게 한다. 또한 管理 및 販賣職의 人件費는 固定費用에 準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生産量의 增大에 따라 이 部門의 平均人件費 지출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表 5> 規模에 따른 組立業體의 製造原價下落展望 (단위: %)

	10萬臺	20萬臺	30萬臺	50萬臺	100萬臺
製造原價	100.0	98.8	98.1	97.3	96.2
部品및 材料費	100.0	99.9	99.8	99.8	99.0
人件費	100.0	89.1	85.5	80.0	74.5
其他	100.0	82.4	70.6	63.2	57.4

資料: 本研究設問調査에서 推定.

材料費와 人件費를 제외한 製造經費, 管理 및 販賣費, 營業外費用은 生産規模의 增大에 의한 費用節減이 가장 현저한 部門이다. 減價償却費, 固定投資에 대한 利子 및 機會費用, 賃借料 등은 固定費用으로서 平均費用이 生産 增大에 逆比例하여 減少한다. 이밖에 一般管理, 輸送, 保險, 市場開拓을 위한 經費도 生産 增大에 따라 그 平均費用이 크게 下陷할 것이다.

이 研究에서는 칼라TV組立企業에 限하여 生産規模의 擴大에 따른 製造原價의 下落展望을 調査하였다. <表 5>는 3個企業의 展望을 平均한 結果인데 部品産業에서의 量産에 의한 部品費用의 節減效果가 反映되지 않았고 가장 規

模의 經濟가 顯著할 것으로 豫想되는 管理 및 販賣費와 營業外費用이 포함되지 않아 生産規模 增大에 따른 우리나라 칼라TV의 原價下 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人件費 및 其他費用에서의 原價下 落趨勢를 나타냄으로써 生産規模擴大에 따른 우리나라 칼라TV産業의 原價節減效果를 推定하는 根據資料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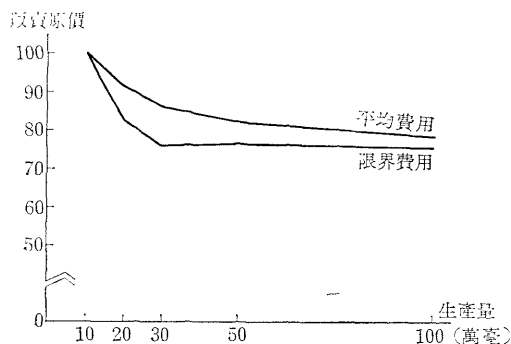
〈表 6〉 生産規模 增大에 따른 費用節減

(단위: %)

	10萬臺	20萬臺	30萬臺	50萬臺	100萬臺
材料費	39.9	39.9	39.9	39.9	39.9
에너지 및 유틸리티	3.5	3.5	3.5	3.5	3.5
人件費	19.1	17.0	16.3	15.3	14.2
其他	37.5	30.9	26.5	23.7	21.5
合計(平均費用)	100.0	91.3	86.2	82.4	79.1
(限界費用)	100.0	82.6	76.0	76.7	75.8

資料: 本研究設問調査에서 推定.

〔圖 1〕 칼라TV工業의 費用曲線



〈表 6〉은 〈表 5〉와 〈表 2〉의 販賣原價費用 構成에 依據하여 우리나라 칼라TV産業에서의 生産規模增大에 의한 販賣原價 節減效果를 推定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①組立 및 部品産業에서의 生産規模增大에 의한 利益은 같고, ② 材料費, 에너지 및 「유틸리티」費用, 人件費를

제외한 販賣原價에서 發生하는 經費節減效果는 上記費用을 제외한 製造原價에서 發生하는 효과와 같으며, ③材料費와 에너지 및 「유틸리티」費用은 生産規模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假定하였다. 調査된 資料가 信憑性이 있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假定은 材料 및 에너지費用에서의 原價節減效果가 勘案되지 않았고 製造過程에서의 其他經費節減效果보다 販賣費, 管理費, 營業外費用 등의 經費節減效果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生産規模增大에 의한 利益은 다소 낮게 推定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는 組立企業單位當 生産量이 基準이 되었기 때문에 假定 ①이 問題가 되는데 關聯部品産業은 그 系列의 母企業 生産增大에 比例하여 受注量이 增加하고 平均費用下 落도 이에 따라 比例한다고 본 것이다.

〈表 6〉에 의하면 1個의 組立企業과 그 系列 企業의 生産量이 10萬臺일 경우를 100으로 볼 때 이것이 20萬臺, 30萬臺, 50萬臺 및 100萬臺로 增加함에 따라 販賣原價는 91.3, 86.2, 82.4, 79.1로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0萬臺를 基準으로 볼 때 10萬臺에 대한 原價下 落率은 17.6%로서 이 중 3.8%가 人件費의 下 落에서, 나머지 13.8%가 기타 費用의 下 落에서 發生한다. 또한 費用節減은 처음 10萬臺에서 20萬臺로 擴大될 때 가장 현저하고 다음의 生産擴張段階에서는 점차 그 下 落率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限界生産費用은 20萬臺까지 17.4%, 20萬臺에서 30萬臺 사이에 6.4% 減少하고 30萬臺 이후에는 더 이상 下 落하지 않거나 오히려 增大함을 볼 수 있다.

위의 費用減少推定은 調査對象企業의 資料 作成過程에 있어서의 誠實성과 推定方法上的 問題로 信賴性이 缺如되어 있음은 認定되나 이

와 같은 費用減少形態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示唆한다. 첫째, 現在 우리나라 칼라TV의 需要는 對美輸出「쿼타」量인 年30萬臺(組立企業當 平均 6萬臺)로 制限되어 있는데 이 段階에서는 약간의 生産擴大가 費用減少에 크게 寄與함으로써 生産規模가 國際競爭力 評價의 決定的 要因이 된다는 점이다. 즉, 國內 또는 輸出市場에서의 與件變動에 의하여 販賣可能量이 現在の 30萬臺에서 100萬臺 수준(組立企業當 20萬臺)으로 增加될 경우의 費用節減效果가 다음 100萬臺 수준에서 500萬臺로 增大할 때의 費用節減效果와 거의 대등하다는 것이다. 둘째, 部品企業이 組立 및 CRT製造業보다는 零細하기 때문에 生産規模의 增大에 따른 利益이 部品製造部門에서 더욱 크고 持續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現在 過剩投資와 낮은 稼動率로 苦戰하고 있는 것은 大企業으로 浮刻되어 있지만 伸縮적인 人力 및 施設管理가 불가능한 中小部品産業이 需要不足에 의하여 더욱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979년의 칼라TV産業의 國際競爭力은 1978년에 對比하여 絶對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1978년의 우리나라 칼라TV生産量은 55萬臺로서 大組立企業의 年生産量은 20萬臺線이었으나 1979년에는 이것이 10萬臺線으로 낮아졌다. 비록 그동안 國產 部品の 供給率이 增大하였으나 이와 같은 需要減少는 이미 供給되고 있는 部品の 生産費用上昇과 새 部品部門에서의 收支惡化로 칼라TV産業 全體로 보아 國際競爭力惡化가 불가

피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部品産業에 대한 施設投資가 계속되어도 칼라TV需要가 今年水準으로 制限되어 있는 한 國際競爭力은 1978年水準으로 回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3. 賃金과 生産性

우리나라 칼라TV 組立 및 部品産業에서의 人件費 比重은 販賣原價의 19.1%를 占有하며 製造原價中 生産職 人件費의 比重은 19.9%를 차지한다. 이것은 販賣原價의 43.4%가 材料費로서 固定되어 있음에 비추어 상당히 중요한 國際競爭力의 決定要素가 된다. 앞으로 賃金上昇은 施設의 自動化와 機械化를 誘發하여 이의 相對的 重要性을 減少시킬 것이나 現在の 生産構造로서는 중요한 原價構成요인이 되며 日本등 先進國에 비해 낮은 賃金水準이 하나의 유리한 競爭力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電氣機器製造業 勤勞者의 月平均 給與는 1978년에 79,240원으로서 同年度 日本의 製造業勤勞者 平均給與 214,575円에 비하여 1/6~1/7 수준이다³⁾. 그러나 兩國의 生産構造 및 資本裝備率 때문에 製品原價當 人件費의 比較基準이 되지 못한다. 1974年度 消費者用 電子 및 電氣機械部門의 韓日間의 勞動生産性 比較指標를 보면 日本은 우리나라보다 1人當 附加價值生産額과 勞動裝備率이 모두 약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最近에는 더욱 日本TV工業에서의 施設自動化를 위한 投資가 促進되어 TV組立에 있어서는 70%까지 自動插入이 가능함에 비추어 日本 등 先進國에 대하여는 낮은 賃金水準이 競爭要因의 하나로 存在하나 그 重要性은 漸減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臺灣 등 生産要素의 投入構造가 비

3) 日本銀行, 『經濟統計年報』, 1978. 1978年度 圓의 對美 換率은 484圓對 1弗, 그리고 1978年12月 圓의 對美換率은 195.4圓對 1弗이었음.

4) 金榮奉,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1979, p. 113.

슷한 나라와는賃金水準이競爭力比較의 중요한指標가 된다. ADL(A.D. Little International, Inc.)이調査한 바에 의하면 1975年 우리나라 電子工業 半熟練工의 月間賃金은 81弗로서 臺灣(68弗)의 1.2倍에 해당하였다. 이 隔差는 1975年 이래 對美換率은 變化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우리나라 電氣機器 製造業部門의 勤勞者의 名目賃金은 110%가 上昇하였으므로 더욱 擴大될 가능성이 많다. 本研究에서 칼라 TV組立企業을 對象으로 調査된 技能工의 初賃은 「보너스」, 手當 등을 포함하여 1978年에 남자의 경우 7~8萬원, 여자는 5~6萬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勤勞者의 平均給與는 科學者 및 技術者가 20~30萬원, 男子技能工이 8~9萬원, 女子技能工이 6萬원 線이었다.

대체로 대등한 수준의 勞動生産性を 假定할 경우 臺灣 등보다 높은 賃金水準은 낮은 部品 産業水準과 함께 中進칼라TV 生産國으로서 競爭力을 弱化시키는 요인이 된다⁵⁾. 賃金水準은 勞動生産성과 關聯하여 分析되어야 하는데 비록 우리나라 勞動力的 生産能率이 競爭國보다 높다 하더라도 안정된 需要基盤이 缺如되어 칼라TV生産라인의 技能工의 熟練度增進을 阻害함으로써 生産性이 增大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本研究에서는 熟練工의 經歷에 따른 給與水

準과 生産性的 關係를 알아보기 위하여 業界 意見を 調査해 본 결과, 經歷에 따라 生産性 向上이 給與增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7 參照). 즉, 勤勞者의 給與는 年平均 5% 정도의 緩漫한 增加가 계속되는 반면 生産性은 처음 1~2年의 經歷을 쌓는 동안 約 2倍로 增加하고 그 다음에도 給與增加보다는 빠른 上昇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企業이 풍부한 經歷의 勞動력을 保有할수록 生産能率이 높고, 따라서 多年間의 生産歷史를 가진 企業이 勞動生産性面에서 他企業보다 유리한 競爭力을 가질 것을 의미한다. 또한 勞動력이 한 分野에서 계속적으로 作業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生産能率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Ⅲ. 支援政策

우리나라에서는 過去에 政府가 財政, 金融, 産業, 貿易政策을 통하여 選別的인 資源配分과 工業育成을 推進하여 왔고 이에 따라 産業과 企業의 政策에 대한 依存性이 매우 높아졌다. 칼라TV産業發展에 있어서도 支援政策의 役割이 매우 컸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이 部門

〈表 7〉 經歷에 따른 給與水準과 勞動生産性的 向上

	(단위: %)					
	6개월 未滿	6개월~1년	1 ~ 2년	2 ~ 3년	3 ~ 5년	5년 이상
給與指數(A)	100.0	101	107	114	124	132
生産性指數(B)	100.0	154	208	208	254	262
B/A	1.0	1.5	1.9	1.8	2.0	2.0

5) 韓國貿易協會, 『長期電子工業育成方案』, p. 116. ADL은 勞動力的 生産能率에 있어서 臺灣보다는 5%가 높고 日本보다는 약간 뒤진다고 評價하였다.

의 企業의 對外競爭能力을 결정하는 重要要因이 되고 있다.

칼라TV工業發展에 영향을 주는 主要 政策은 이의 國內放映과 販賣를 規制하는 諸政策, 輸出産業으로서 받는 輸出支援政策과 重點育成事業으로 適用되는 電子工業振興政策 그리고 이와 關聯되는 社會間接資本 및 行政支援 등으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다. 本研究의 目的이 一般的인 政府의 産業 및 貿易政策에 대한 評價와 分析에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칼라TV産業에 해당되는 몇가지 政策事例를 調査하고 이것이 이 産業의 國際競爭力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市場構造와 國內販賣政策

우리나라 칼라TV産業은 過去 對美輸出의 急激한 伸張에 의하여 成長하여 왔다. 當初 全量輸出을 목적으로 出發한 이 産業育成이 그동안 政策의 變化가 없었기 때문에 輸出增大에만 依存하였으며 또한 世界市場構造의 特殊性으로 美國市場에의 進出만이 활발하였다. 그동안 對美輸出이 制限없이 增大되어 1974년의 4.2百萬弗에서 1976년 7.8百萬弗로, 그리고 1977년에는 16.0百萬弗로 急伸張하였고 1974~78期間 동안의 對美輸出은 116.9百萬弗로서 同期間의 우리나라 칼라TV 總生産額 121.8百萬弗의 96%를 차지하였다.

6)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PAL(Phase Alternation by Line) 및 SECAM(Sequential Couleure A Memoire)로 나누어진 3個 칼라TV放映方式은 各各 다른 走査線數와 秒當 映像數로 區別되는데 이러한 技術의 差異보다는 PAL 및 SECAM 開發者가 同放映地域 이의 國家에서의 製作特許供與를 忌避하고 있기 때문에 地域間 칼라TV交易은 制限되고 있다. 世界市場構造와 特殊性에 관하여는 前記한 金榮奉, 『韓國의 칼라TV工業』(近刊豫定) 參照.

그러나 작년에 締結된 “칼라TV 對美輸出 自律規制 協定”에 따라 對美칼라TV輸出은 1978年 12月부터 1980年 6月까지 19個月間 總411千臺로 制限되었다. 年30萬臺 미만인 이 協定量은 1978年 對美輸出實績 52萬臺의 60% 미만의 수준으로서 對美輸出에만 依存하는 現市場與件 아래서는 絶對的인 生産減少와 稼動率 低下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우기 協定이 급격히 增大하는 韓國TV의 美國市場 占有率을 警戒하여 취하여진 措置임에 비추어 同協定이 滿了된 이후에도 大幅的인 輸入規制의 緩和는 期待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表 8〉 칼라TV 對美輸出 自律規制 協定 (1978. 12. 1~1980. 6. 30)

		期 間	割當量(臺)
1	次	78. 12. 1~79. 1. 31	122,000
2	次	79. 2. 1~79. 10. 31	153,000
3	次	79. 11. 1~80. 6. 30	136,000
合	計		411,000

資料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世界の 칼라TV市場은 現在 各國이 採擇하는 放映方式에 따라 區劃되어 있는데⁶⁾ NTSC 以外の 放映地域에의 市場進出은 制度的 및 技術的으로 制限되어 있으며 PAL基本特許가 消滅되는 1980年 이후에도 積極적인 市場開拓 및 技術開發投資가 先行되어야 이 地域에의 市場進出이 가능하다. 또한 NTSC放映國中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칼라TV의 國內生産組立을 原則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現在의 칼라TV産業政策이 固守되는 限 1978年 수준을 上廻하는 産業發展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需要가 전적으로 輸出에 依存하는 칼라TV産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成長이 制限된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써 國內需要의 不在로 部品産業의 發展과 國內技術開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칼라TV와 같이 品質에 따른 製品差別化가 현저한 경우 國內市場은 改良過程의 製品需要源이 된다. 開發初期의 技術과 部品은 品質의 不均衡과 높은 不良率을 가질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持續적으로 改良하기 위해서는 育成過程에서의 消費者를 필요로 하게 된다. 國內市場은 輸入制限에 의하여 外國商品으로부터 保護되기 때문에 다소 製品의 品質이 낮더라도 이의 市場으로서의 役割을 하게 되며 國內供給者間의 競爭을 통하여 品質改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예는 過去 輸入代替産業으로부터 出發한 黑白TV 등 家電製品과 纖維類 등이 重要輸出産業으로 發展한 事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技術水準과 部品産業水準이 낮은 狀態에서 國內需要가 없을 경우 일정한 品質水準을 요구하는 輸出品生産은 導入技術과 輸入部品에 依存하게 된다. 그리고 불확실한 國內開發技術과 部品 사용을 忌避하게 되어 組立爲主의 工業構造가 形成됨으로써 工業의 均衡發展과 聯關效果의 増大가 沮害된다.

다음으로, 國內需要가 拋棄됨으로써 市場規模가 制限되어 規模의 經濟에 의한 利益과 原價節減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量産에 의한 利益은 組立工程에서의 施設自動化 등 適正要素配合에 의한 利益과 部品産業發展에 의한 部品購買費用의 節減으로 區分하여 觀察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後者의 經濟的 意義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칼라TV原價는 특히 部品供給費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低廉한 部品價格은 國際競爭力의 가장 중

요한 要素가 될 뿐만 아니라 國內에서의 部品供給 자체가 중요한 産業育成目標가 된다. 따라서 市場規模의 零細는 수직에 달하는 칼라TV부품의 供給企業의 零細를 의미하며 部品産業發展에는 市場擴大가 基本要件이 된다.

또한 海外需要依存型 工業構造를 가짐으로써 企業이 安定的 成長을 기할 수 없게 된다. 國內需要는 海外需要와 補完的인 役割을 擔當하여 景氣變動, 輸入規制 등에 의하여 海外市場與件이 惡化될 때 國內市場의 維持 및 擴大로서 企業活動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提供한다. 國內市場의 餘裕가 없을 경우 일시적인 輸出需要의 下落은 시설의 稼動中止와 資金壓迫에 의한 廢業까지 초래하게 되어 輸出需要가 正常的으로 回復되더라도 生産再開에는 다시 時間과 投資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은 組立業體인 綜合家電企業보다 零細하거나 칼라TV部品 專門生産業體인 部品企業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칼라TV産業에 있어서는 특히 輸出需要의 不安定성과 不確實한 採算性 등이 企業의 安定的 成長을 沮害하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輸出需要는 海外景氣, 輸入規制, 競爭國 擡頭 등 豫測하기 어렵고 企業의 노력으로 打開하기가 어려운 與件變動 때문에 國內需要보다 그 展望이 불확실하다. 또한 先進企業의 技術革新과 物價 및 換率變動에 의한 生産要素와 製品의 價格變化를 豫測할 수 없기 때문에 輸出은 國內販賣에 비하여 安定的인 利益率을 豫想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長期的인 施設擴大와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意慾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列擧된 바와 같이 需要擴大는 칼라

TV 産業振興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擡頭된다. 일단 安定的이며 충분한 需要가 展望되면 이것은 組立 및 部品産業에서 施設, 技術 및 市場開拓을 위한 投資를 誘發하여 칼라TV工業의 兩大 國際競爭力 요인인 低廉한 部品供給과 技術向上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在 우리나라 칼라TV工業의 가장 중요한 脆弱點은 安定된 國內需要基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2. 輸出支援政策

우리나라의 칼라TV는 全量輸出되고 있으므로 輸出支援政策에 의한 受惠가 매우 중요하다. 貿易去來法에 根據하여 각종 租稅, 金融, 外換制度에 의하여 輸出産業이 受惠하는 支援惠澤의 중요한 것을 列舉하면 外貨設備金融, 生産集荷, 原資材와 完製品 購買, 原資材 輸入 및 備蓄에 대한 優待輸出金融, 施設材에 대한 關稅 減免과 原資材에 대한 關稅還給, 輸出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除, 輸出原資材에 대한 消耗率 許容, 기타 輸出企業에 대한 外換 및 稅制上의 支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直間接補助額은 1974年 弗當 111.7원으로서 當年度 名目換率 407원의 27.4%가 支援되는 것으로 推計되었다⁷⁾. 그러나 1974年 以來 輸出企業에 대한 法人稅減免(50%)이 없어졌고 關稅의 事前免除가 關稅還給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輸出에 대한 補助額은 상당히 낮

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上記推計에서는 1974年度 內國稅減免과 關稅減免이 全體 補助額에서 占有하는 比率은 각각 20%와 72%를 차지하였다.

輸出支援中 가장 比重이 큰 것으로 推計된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輸入關稅減免은 엄밀한 의미에서 輸出에 대한 補助인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輸出用原資材에 賦課하는 關稅는 外國의 製品消費者에 대한 課稅를 의미하므로 租稅原則上 그 合理性이 問題가 된다. 또한 위의 關稅減免에 의한 支援額은 우리나라에서 適用되는 品目別 關稅率을 適用하여 推定된 것이기 때문에 關稅率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에 대해서는 支援率이 높게 評價된 것이다. 그러나 原資材에 대하여 關稅를 賦課하는 輸出對象國 또는 競爭國製品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製品의 유리한 價格變動要因이 될 것임은 매우 당연하다.

輸出金融은 關稅減免 以外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輸出支援이라고 보여지며 특히 이를 이용하는 企業에게는 중요한 支援惠澤이 된다. 現行 輸出金融制度에 의하여 90日 融資期間을 原則으로 生産集荷, 完製品購買, 原資材輸入 資金에 弗當450원을, 原資材購買資金에 480원을, 그리고 備蓄用完製品購買資金에 年430원을 年9%로 融資해 줌으로써 一般貸出金利(商業어음割引率) 19%에 대하여 弗當 약11원을 支援해 주는 폭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物價上昇과 資金의 機會費用이 높아 銀行의 貸出 自體가 支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生産資金의 支援은 金利補助 以上の 支援을 의미한다⁸⁾. 輸出金融은 또한 輸出生産을 支援하기 위함이 목적이나 企業의 사정에 따라 短期的으로 他目的에 轉用되거나 輸出金融

7) 金光錫, Larry E. Westphal,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6, p. 111.

8) 現行市中의 私債金利를 3% 水準으로 假定할 경우 輸出金融에 의한 實質補助額은 弗當 30원 水準이 된다. 그러나 私債金利는 制度金融市場狀況에 따라 변하고 우리나라 金融市場에서 輸出金融의 比重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이 實質的인 金融補助額이다.

期間內에 輸出이 履行되었을 때는 企業에 대한 支援의 役割을 하게 된다.

輸出에 대한 支援은 명백한 國際競爭力 增大要因이 되나 비록 그 補助額에 크게 못미치더라도 이의 受惠를 위한 費用支出을 隨伴하게 된다. 關稅還給의 경우 關稅의 優先納付에 의한 資金負擔, 복잡한 書類作成과 下請過程에서의 漏落에 의한 還給拋棄 등으로 실제의 減免額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며 輸出金融, 關稅還給, 事後管理 등에 필요한 書類作成과 手續을 위하여 人力과 資源의 지출을 요한다. 따라서 적절히 價格機構(換率)를 活用하여 이와 같은 支援政策을 대신할 수 있다면 國家的으로 效率인 資源使用이 가능하며 輸出金融의 濫用 등 輸出支援에 의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貿易政策의 根幹을 이루는 換率은 輸出價格을 직접 결정하는 變數로서 前述한 輸出支援과는 相互 代替인 관계에 있다. 즉, 換率이 충분히 輸出에 유리하게 調整될 경우 輸出支援은 전혀 필요없게 될 수도 있으며 反面에 貿易 以外에 通貨金融政策上的 목적으로 불리하게 調整될 때는 輸出支援을 극단적으로 늘려 주어야 輸出市場에서의 競爭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1974年「오일 쇼크」以來 우리나라의 對美換率은 484원對 1弗로서 固定된 반면, 都賣物價指數는 73%, 製造業勤勞者賃金은 208%가 上昇하였다. 同期間의 美國의 都賣物價指數가 26% 上昇한 것을 勘案하면 원

貨는 實質的으로 弗貨에 대하여 1974年 對比約 37%가 切上된 폭이 된다. 따라서 비록 大幅인 輸出支援政策上的 惠澤이 있더라도 적절한 換率調整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輸出産業의 價格競爭力에 대한 貿易 및 外換政策의 효과는 매우 적어지거나 또는 負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3. 其他 産業支援政策

칼라TV組立 및 部品産業은 政府의 重要育成産業으로 “電子工業振興法”에 明示되어 있는 特惠를 받는다. 이 法은 重點育成對象品目과 生産業體를 指定함으로써 指定된 業體에는 建設資金과 運轉資金을 優待金融으로 支援하고 商工支援行政과 技術研究所의 支援을 優先的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政府는 振興計劃의 樹立, 品質檢査, 技術開發, 技術訓練을 위한 制度와 機構의 擴大 및 整備, 電子工業團地의 造成과 기타 行政的 支援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支援은 指定企業에게 직접적인 金融 惠澤⁹⁾과 간접적인 成長環境을 賦與함으로써 중요한 國際競爭力의 增進要因이 된다. 칼라TV關聯産業으로는 現在 칼라TV組立, CRT, DY, FBT, 「튜너」, CRT유리 등이 電子工業振興法上 指定品目으로 되어 있고, 이밖에 칼라TV, DY, 電子銃, 電子管, 電子管유리, 「쉐도 마스크」(shadow mask), VTR 등이 租稅 및 關稅減免品目으로서 指定되어 支援받는다.

政府는 특히 1975년에 龜尾電子工業團地를 創設하여 指定業體의 新規工場은 工團入住를 義務化시켰는데 이에 의한 支援效果는 다시 檢討 評價해야 할 필요가 있다. 工業團地의 造成은 關聯業體를 集合함으로써 部品供給, 技術

9) 金融惠澤은 “國民投資振興法”에 依據한 것으로서 重點育成對象品目の 生産業體와 龜尾電子工業團地 入住業體에게 施設資金의 70%까지 8年 동안 年利 13~14% 條件으로 融資하여 준다. 電子工業部門에의 이 基金配定은 1976年 10億원, 1977年 40億원, 1978年 60億원, 1979년에 100億원으로 策定되었으며 業體當 融資限度는 2億원으로 되어 있다.

交流 등 外部經濟를 增加하고 「유틸리티」와 支援設施의 效率性を 높이며 入住業體의 工場敷地 確保가 유리한 점 등 利益이 있으나 勞動生産要素市場에서는 競爭을 誘發할 憂慮가 있다. 따라서 工團立地選定에는 勞動力供給源, 交通, 用水 등 諸立地 요인에 대한 考慮가 필요한데 龜尾工團에는 勞動力의 確保가 가장 중요한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入住業體의 意見에 의하면 遠隔地로부터 技能人力을 채용하여야 하고 거의 全從業員의 宿所를 確保하여야 하기 때문에 勞動力確保에 지출되는 費用이 다른 地域보다 매우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政府의 支援投資는 이와 같은 費用增大 때문에 그 投資效率이 減少하게 되는 것이다.

綜合적으로 칼라TV工業에 대한 支援體制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競爭力 增大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國家的 見地에서 그 資源支出의 效率성은 企業에게 이의 受惠를 위한 費用支出을 所要하게 하기 때문에 낮아진다고 評價되며 價格機構의 活用을 통한 輸出支援 部品産業과 技術開發을 위한 與件造成 등이 國際競爭力 向上에 보다 效率的인 政策手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N. 要約 및 政策的 結論

위의 分析結果를 綜合하면 우리나라 칼라TV 工業發展은 生産構造 및 生産要素供給上의 問題보다는 需要條件에서 기본적으로 制約要因이 있음이 나타난다. 現在 우리나라의 組立施設과 CRT供給能力은 각각 1日8時間 稼動基準으로 年産 180萬臺에 이르러 國內需要와 輸出

이 劃期的으로 增加하여도 中·長期間 供給施設上의 隘路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企業의 投資意慾과 進就性도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生産要素條件變化에 對應하는 施設投資와 市場活動이 활발할 것으로 期待된다. 生産要素價格에 있어서는 急激한 賃金上昇趨勢가 國際競爭力의 弱化要因으로 展望되나 臺灣보다는 불리하지만 美國, 日本 등 先進國에 대하여는 長期間 동안 顯隔한 차이를 가질 것이 豫想된다. 우리나라에서 資本은 값비싼 生産要素이나 施設 및 運營資金은 政策支援에 의하여 유리한 條件으로 提供되고 있으며 이것이 恒久的으로 維持될 수는 없으나 現在에는 企業의 유리한 競爭力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앞으로 우리나라 칼라 TV 工業의 國際競爭力은 部品産業과 技術水準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市場規模 특히 國內需要基盤과 相互聯關性을 가지는 것으로서 大規模需要가 生産基盤을 擴大하고 部品産業이 供給能力和 研究開發 및 技術投資能力을 培養한다. 그리고 國內에서 試驗·開發되는 部品과 技術의 需要源으로서 安定된 國內市場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過去에 國內需要가 없어 部品과 技術의 海外依存性이 높았으며 不確實한 國內販賣展望이 이에 대한 投資를 沮害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制約된 海外市場與件은 現在 우리나라 칼라 TV 工業成長의 직접적인 制限要因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過去의 낮은 工業水準에서 연유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國內需要基盤과 聯關된다. 海外市場構造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不可避하며 우리나라의 칼라TV가 品質·價格面에서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保有하고 企業의 市場投資能力이 增大됨에 따라 海外市場에서의

우리나라 칼라TV의 占有率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展望된다. 따라서 安定된 需要基盤의 構築은 우리나라 칼라TV工業의 競爭力增大와 成長의 前提가 된다. 國內需要가 確保되면 이것은 組立工業에서의 生産性向上과, 部品工業의 發展, 工程 및 디자인技術의 開發, 海外市場投資의 增大 등을 誘發함으로써 칼라TV工業基盤의 擴大와 競爭力向上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日本과 臺灣 등 칼라TV輸出 擴大에 성공한 나라들이 대체로 이와 같은 成長과 턴을 가졌다.

電子機器部門에서 신속한 技術開發趨勢에 비추어 短期間의 開發遲延도 國際競爭力 향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는 臺灣에 비하여 칼라TV生産 시작에서 5年, 그리고 國內需要基盤 造成에서는 10年 이상의 時差를 가지고 있으며 現在의 部品産業水準과 海外市場占有率이 크게 뒤진다. 이것은 世界市場에서 中進國의 위치가 提高될 경우 市場占有率의 爭奪競爭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劣位에 처하게 되고 그 時差가 벌어짐에 따라 中進國의 競爭隊列에서도 落伍될 수 있음을 示唆한다.

비록 海外市場與件이 變化하지 않을지라도 칼라TV工業은 內需産業으로서의 育成必要性을 가진다. 칼라TV는 黑白TV에 비하여 월등한 機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大衆普及을 回避할 수 없으며 國內칼라TV工業의 競爭力이 완전히 喪失될 경우 마침내 非效率的 輸入代替産業으로서의 問題點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VTR, 「비데오폰」(video phone) 등 칼라TV 이후에 普及擴大가 有望視되는 製品이 칼라TV技術과 生産基盤에 基礎하여 開發生産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成長性이 가장 큰 電子産業育成을 拋棄하지 않는 한 中樞電子産業으로서의 이 産業의 育成妥當性은 存在하는 것이다. 따라서 칼라TV工業政策은 國內産業 및 貿易政策의 一環으로서 考慮될 필요성이 있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79.
 金榮奉,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研究叢書 第28卷, 韓國開發研究院, 1979.
 金光錫, Larry E. Westphal,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5.
 日本銀行, 『主要企業經營分析』, 1970~78.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9.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78.
 韓國貿易協會, 『長期電子工業育成方案』, 1976.
 韓國精密機器센터, 『韓國電子工業統計年鑑』, 1978.
 美國 EIA, *Electronics*, Jan. 5, 1978.
 Nomura Research Institute, *World Television Industry*, 1978.